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여성이나 커플 이외의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회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면, 즉, 예를 들어 자신의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임신중절을 허용치 않기로 했더라도, 결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을 대신해서 정치가들이 미리 그런 결정을 해버렸을 뿐인 것이다.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아이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생식적 선택을 하고 싶어한다. 어려운 환경이나 아이의 건강을 최대한 좋게 해주고 싶다는 압박할 만한 바람 때문일 때도 있다. 무제한적인 선택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의사, 정치가, 법률가, 심지어는 압력단체와 같은 제삼자가 관여하는 것을 걱정해야만 한다. 여성이나 커플을 대신해서 그들의 허락 없이 제삼자가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면 상상 속의 '맞춤아기'보다도 이편 이 사회적으로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입장 4

생식의 자유

존 해리스*

보조생식기술에 대해 어떤 속박이나 제약이 있어야 할까? 생식의 넓은 길뿐만 아니라 그 좁은 샅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즉 언제, 어떻게, 왜 출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모발, 눈, 피부 색깔과 같은 특징들, 일반적인 체형, 지능, 운동능력과 같

* 존 해리스(John Harris)는 맨체스터 대학의 데이비드 얼라이언스 생명윤리학 교수(Sir David Alliance Professor of Bioethics)이며, 영국의료협회의 윤리위원회와 영국 인간유전 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 수록된 그의 글은 수년에 걸친 연구의 성과이며, 관련된 생각들은 아래의 글들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거나 곧 출판될 예정이다. 『클론, 유전자, 그리고 죽음 없는 삶』(*Clones, Genes and Immortality*), 옥스퍼드 출판사, 1988. 「권리와 생식적 선택」("Rights and Reproductive Choice"), 존 해리스(John Harris)와 쇠렌 홀름(Søren Holm) 편집, 『인간 생식의 미래』(*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옥스퍼드 출판사, 1998. 「인간의 개념과 생명의 가치」("The Concept of the Person and the Value of Life"), 『케네디 윤리연구소 저널』(*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9, 4, 1999. 「장애에 대한 일관된 사회적 개념은 존재하는가?」("Is There a Coherent Social Conception of Disability"), 『의료윤리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 26, 2, 2000년 4월. 「복제와 균형적인 윤리」("Cloning and Balanced Ethics"), 이에인 토랜스(Iain Torrance) 편집,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생명 윤리』(*Bioethics in the New Millennium*), 세인트 앤드류스 출판사, 2000. 「생식적 선택」("Reproductive Choice"), 『인간 유전체 백과사전』(*Encyclopaedia of the Human Genome*), 네이처 출판부, 2002.

은) 아이의 표현형 등 기술적, 유전적 조작이 가능한 다른 특징까지도 통제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생식에서의 개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생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보자. 그런데 그런 개입은 더 일반적으로 본다면 의학적 개입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그에 선행하는 다음의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학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어느 경우인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리고 명백해 보이는 답변은 그 기술이 이롭게 사용될 때, 이로움에 비해 해로운 부작용이 적을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술을 통해 얻게 되는 이로움과 그 이로움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환자가 그 기술을 요청하거나 그 기술 사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이해 당사자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학적 개입의 중요성은 그 이로움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 개입이 환자가 원하는 이로운 일을 할 때, 그리고 환자가 개입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개입이 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될 때 의학적 개입은 윤리적인 것이 된다.

의학적 '이로움'은 많은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운동능력을 되살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로움이 의학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특정한 이로움을 위해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

이 의학적 기술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그 개인들에게 의학적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이끌어낸다. 의학적 개입이 마땅히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공공자원의 사용은 정당화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그 자원의 지원이 언제나 자원에 대한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면, 무해하거나 혹은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도덕적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의학적 기술이나 개입이 전혀 혹은 별달리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이런 식으로 남성의 포경수술과 여성의 가슴확대술 등 대부분의 선택적 의료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수술이 고통을 막거나 줄여준다면, 수술을 하는 것과 거기에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정당화된다. 큰 가슴이나 포경수술을 받은 성기를 좋아하지만 타고난 신체 때문에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닌 때처럼 순전히 개인적 선호에 의한 경우에는, 의학적 개입이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 개입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당하는 해는 아주 작지만 다른 이유에서 비도덕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학적 개입을 원한다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이마에 지워지지 않게 인종차별적 슬로건을 새겨 넣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이는 인종혐오를 선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그 결과를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논외로 한다면,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의료 기술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다. '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것은 아니며, 의료 기술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의료 활동이 갖는 정당성을 공유한다. 이런 의료 일반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의료 기술은 그 자체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에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누가 무엇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일까?

자유 선호 추정(Presumption in favor of liberty)을 할 수 있는가?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 선호 추정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옳다면, 인공적 생식기술 사용을 반대할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추정에 따라 이 기술을 사용할 자유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추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할 자유에 관해 이를 지지할 만한 근거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생식의 자유

생식에 대한 스스로들의 선택권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하지만 최근에서야 굳건히 확립된 '기본권'의 한 예로서 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인권에 관한 주요 협정이나 선언문이라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 권리는 때로는 결혼을 하고 일가를 꾸릴 권리로 표현되고, 때로는 사생활의 자유와 가정생활 존중의 권리로 표현된다.¹² 때로는 '생식의 자유'나 '출산의 자율권'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생식적 자유의 권리는 그 기원이 다양하며 많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리가 생식의 권리, 그 자체에서 연유했다고 생각하

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자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생각한다.¹³ 확실히 이 권리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식 그 이상의 경우에 까지 이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 권리가 그런 통상적인 생식이 체현하고 있는, 혹은 그런 생식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일련의 가치와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일례로, 존 로버트슨은 이 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의미, 존엄성에 있어 생식은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식의 도덕적 권리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중요성, 즉 개인의 자주성의 윤리에 있어서나, 결혼과 성적 결합의 목적을 자녀 출산과 양육에서 찾는 사회 윤리나 가족 윤리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출산의 권리는 중요한 도덕적 권리가 된다. 또한 이 중요성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한 생식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는 자명한 도덕적 권리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선택된 아이』,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 1994)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생식의 자유와 출산의 자율권을 “국가가 그 권리를 부정해야만 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 한, 생식에 관해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자율권은 서구 정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서구 정치 문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양심과 확신에 따라 대답할 도덕적 권리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넓게 보자면 출산의 자율권이라는 원칙

은 민주적인 문화의 어디에나 심어져 있다. (『생명의 지배』, 하퍼콜린스, 1993)

내가 볼 때, 드워킨과 로버트슨이 내놓은 설명의 중심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생식이 갖는 중요성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치들은 출산과 가족꾸리기를 스스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개인의 자유에 관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이 가치들은,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가족이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어하는 굳건한 신념과 도덕성을 나타낸다.

유전자를 물려줄 자유의 중요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한다면, 이 자유는 당연히 생식적 자유의 한 영역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유전자의 특별함에만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출산의 의무(imperative)를 유전적 선택의 의무와 연결지어 생각해왔다. 이 제안의 설득력이 크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생식적 자유와 관련 기술에 접근할 권리가 부정될 수는 없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생식적 자유란 단순히 하고 한가하게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생식적 선택이 출산의 자유권과 자율권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생식적 선택의 권리는 도덕적인 권리로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언젠가, 어딘가에 모인다 하더라도 이 권리가 쉽게 기각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골라내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타인의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에 반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야만 한다.

인공적 생식 기술 사용을 막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는가?

어떤 개입이 그 자체로서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그 개입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떤 특성을 낳는 개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술을 통해 태어난 개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이 해가 될 경우에 그 개입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에 대신 남자에게 태어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특정한 색깔의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나 운동신경, 음악적 재능, 높은 지능 등 다재다능한 아이가 태어나거나 만들어졌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아이를 두고 나쁜 조건이나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하기는 힘들 테니까 말이다. 또,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위협하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것 같다. 어느 누구도 그런 특징을 지녔다는 이유에서 아이의 출생을 슬퍼할 리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가 자신이 토실토실하고 기운이 세며 파란 눈에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남자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혹은 예쁘고 나긋나긋하며 축구에 뛰어난 갈색 눈의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불평할 리도 없다.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장애아를 낳기로 한 선택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평생 절름발이, 귀머거리, 장님으로 살아야 하거나 어린 나이에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아이라면 이런 특징을 심숙고해서 선택한 부모나 타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건강하고 재능 있게 맞추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이나 성별 등 무해하고 유용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동신경이 좋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난 토실 토실하고 힘센 갈색 눈의 똑똑한 여자아이를 바라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면, 기술을 이용해 스스로 요정대모님(fairy godmother)이 되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식기술 각각에 대해 그 선택을 알아보고, 우리가 밝힌 원칙들이 그 선택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나이든 부모

나이든 남자나 여자,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임신을 돕기 위한 인공적 생식기술 사용은 허용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가임기를 연장시키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의학적 활동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프거나 자연적으로 일찍 죽는 법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의료 종사자나 의학자들이 할 일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나이든 여성의 임신이 위험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시술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엄마의 건강이 확실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엄마 자신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는 분명 그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인 것이다. 물론, 어느 나이에라도 임신과 출산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어머니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기도 하다.

70대의 폐경기 여성에게 10대인 아이가 있다면, 젊은 혈기가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하여 부모가 해주어야 할 힘든 일도 못해주고 놀아주

지도 못하는 등 부모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신체장애를 가진 수많은 부모들의 출산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력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는 60대나 70대인 사람들이 80대나 90대가 된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도 흔하다. 이같은 일은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기대하는 역할로서, 어느 면으로 보나 아이를 돌보는 일보다는 훨씬 힘이 많이 든다.

어린 나이에 겪는 부모의 죽음은 아이들이 피해야만 하는 시련일까?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의 상실이란 어떤 나이에거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 더 그럴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사별이 비극이라는 점에 대해 여러 문헌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런 해로운 영향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 문헌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¹⁴ 어쨌든, 문제는 이렇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겪는 부모와의 사별이 그 아이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살 가치도 없으며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일이라는 걸까?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춤아기

생식적 선택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맞춤아기’라는 말로 묘사할 때, 거기에는 명백히 부정적인 함의가 담겨 있다. 부모가 아이를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유행이나 그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성관계를 통한 생식과 출산 파트너의 선택에도 맞춤의 요소는 많이 들어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과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요소들도 맞춤아기 속에 모두 포함되어 들어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택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선택은 피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용인된 방식 혹은 문화적으로 용인된 방식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행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 선택

출산에서 맞춤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 위해 맞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성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특징 또는 형질과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징 또는 형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 특징의 존재 유무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때, 그 특징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색깔이 이 색이 아니라 저 색이라든가, 혹은 여기서 다물 것처럼 성별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든가 혹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선택 방식 또한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낙태를 합리적인 결정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신 중 특정 시점에 오렌지주스 1리터를 마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아직까지는 성별을 결정하는 믿을 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기 전에 원칙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법이다.

성 선택이라는 생각이나 그 비슷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미끄럼틀' 논쟁의 두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하나는 성 선택으로 인해 특정 성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면 선택받지 못한 성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선호도는 인종차별적인 그래피티(graffiti, 낙서)와도 같이 그들에

게 굴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 성에 대한 선호도가 사회의 인구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확실히, 이 둘은 매우 다른 종류의 결과이기기는 하다.

여러 성별 중 하나의 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딸만, 혹은 아들만 좋아하는 식으로 하나의 성을 다른 성보다 더 좋아하는 데에는 존중할 만한, 편파적이지 않은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성별을 가진 아이 낳기를 선호하는 것을 다른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종교, 한 동포, 동일한 인종, 심지어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과 결혼하려 하는 것이 다른 종교,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계급에 대한 차별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물론, 한쪽 성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면 앞에서 지적했던 두 가지 문제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는 걱정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영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또는 이 영향이 너무 해롭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쉽게 가정해버리는 것은 히스테리에 가까워 보인다.

성 선택의 달갑지 않은 악영향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인구가 대략 5,800만 명에 이르는 영국 같은 사회에서 10년 동안 약 백만 번 정도의 성 선택 절차를 허가하면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 같거나 사회나 개인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정책을 개정하겠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 패턴이 나올지, 선택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이 한쪽으로 집중된다 하더라도 인지적으로 인식되기 전이라면 불균형은 아직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시킬

수도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지역이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말이다(이 기술은 물론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하며 국가의료제도에 포함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로) 성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출산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만 하고, 성 선택 방법으로 정자 선택이나 착상전 검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무척이나 신뢰가 간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도 당분간은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튼, 성급한 법 제정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다. 그보다는 허가를 내주면서 정기적인 감시를 병행함으로써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맞춤 요소는 어떤까?

자궁에 착상되기를 기다리는 여섯 개의 배아가 있다. 검사 결과 3개는 유전병에 걸려 있고 3개는 정상이란 것이 밝혀졌다면, 이 중 어느 3개를 착상시켜야 할까? 유전병에 걸린 배아를 선택해 착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질병에 걸린 아기를 낳을지 여부를 결정해서 예방 가능한 질병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실제와 달리, 나는 이 경우에 성공적으로 태어날 확률은 모든 수정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겠다.) 자, 이제 세 개는 정상이고 다른 세 개는 평균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건강하게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수정란을 선호하는 데에는 어떤 도덕적 근거가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결정은 좀 더 복잡하다. 어쨌든 평균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은 배아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윤리적이라고 결론짓기는 힘들 것 같다. 이제 다른 상

황을 가정해보자. 착상전 유전자 검사로 세 개의 배아가 높은 지능을 갖고 있음을 알아냈다. 또다시 나는,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똑똑한 배아를 착상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아를 착상시키는 것이 비윤리적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배아의 안전한 유전자 조작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머리도 좋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보자. 자연이 내린 우연적 '축복'을 이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라면, 착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검사할 수 있어서 그런 기술로 축복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 별

특정 형질의 아이를 디자인하는 것은 선택되지 못한 형질을 가진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맞춤이라는 전략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올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며, 또는 이 차별로 인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모든 차별적 선택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선택은 잘못이다. 불공정한 차별은 수많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 논의의 목적에 맞도록, 여기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한정시켜보는 것이 좋겠다.

관련 정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또한 그 결

정이 해당 이슈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결정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예로는 고용 자격조건으로 인종을 따지는 경우, 민주적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산을 따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생식기술에 있어서, 피부색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그 결정은 불공정한 차별이 된다. 하지만 오존홀의 위협을 받는 지역,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곳에서 창백한 피부가 피부암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 요소라면, 호주 사람들이 갈색 피부의 아이를 선호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를 갖는다.

선택이나 결정이 가져오는 도덕적 결과 혹은 사회적 결과

유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부도덕하거나 유해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이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그 여성이 속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녀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여성을 고용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에게 임신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다면, 또 그런 이유에서 이루어진 차별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아를 선택하려는 결정 또한 불공정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심각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 과정의 정당성

어떤 사람이 타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택의 원칙을 임의적으로 또는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선택은 불공정하다. 실제로는 최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을 지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떨어졌다면, 그 선택 과정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생식의 경우, (나이든 부모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생식기술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술을 받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된다.

누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

생식에서 장애를 배제하는 것을 두고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장애를 배제하는 경우 대신에 장점을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배아가 주요 질병, 예를 들면 HIV/AIDS, 암, 심장병 등에 대해 완벽한 면역력을 갖고 있어 장수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보자. 내가 보기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배아를 선호하여 착상시킬 만한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또는 2001년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 가치가 없다거나 열등하고 문제 많은 형질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미래의 내 아이에게 이런 장점을 주고 싶어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열등한 형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선택은, 그 선택에 의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공정한 차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어떤 타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그 선택으로 인해 배제당한 아이에게조차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님에게 특정한 달에 아이를 가져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들이 1944년 12월이 아닌 다른 달에 아이를 가졌더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부모님의 이 선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나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불평을 늘어놓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뿐 아니라, 내 부모님이 그 달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거나 그분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지라도, (만약 그랬더라도) 나의 불평을 듣지는 못했을 테고, 그 누구에게도 불평을 할 만한 정당한 근거는 없었을 것이다.

1944년 12월에 시험관 시술과 산전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고 '나'는 배양접시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내가 가진 유전적 단점을 갖지 않은 다른 배아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내가 불평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 이 선택이 나와 같은 유전적 특징을 갖춘 사람들에게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착상전 단계의 배아 중에서 선택한대거나 다른 배아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 배아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불공정한 차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태어날 권리나 착상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낙태나 다른 선택의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입장 5

맞춤보다는 타고난 것이 더 낫다

조세핀 쿼타빌레*

언젠가는 인류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죽지도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허용될 수 있다. 이같은 생각은 서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만트라(mantra)[眞言]이다. 유사 이래로 인간은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며, 어느 정도나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

인간 생식의 역사에서 1978년 7월 25일은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 날은 모태수정이 아니라 배양접시 위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간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브라운 가족은 당시의 기준에서 상당히 정상적인 가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루이스는 그들의 유전적 자식이었다.

* 조세핀 쿼타빌레(Josephine Quintavalle)가 1994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생식 윤리 비평(Comment on Reproductive Ethics, CORE)이라는 공공 이익단체는 인간생식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균형 있는 토론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생명윤리 학술대회, 자문, 브리핑을 주최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녀는 영문학 대학원생이며, 생명윤리와 공공정책 센터(CBPP) 위원회에 있다.